

## 교수신뢰 척도 개발에 관한 예비 연구

정 은 이<sup>†</sup>

청운대학교

박 용 한

오레곤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의 신뢰 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에 적합한 교수 신뢰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분석과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뢰 척도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교수 신뢰의 구성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문항을 제작하고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270명이고, 예비검사 및 본 검사에 참여한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대학생들 790명이었다. 최종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고,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7개 문항의 교수 신뢰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신뢰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나 매우 신뢰로운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된 척도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부합도 지수들이 적절하게 나타나 본 척도가 교수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검증해 주었다.

주요어 : 교수신뢰, 척도 개발, 타당화

---

<sup>†</sup> 교신저자: 정은이,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 29번지  
Tel: 041-630-3301, E-mail: jejei@chungwoon.ac.kr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성격에도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의 요구는 특히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이를 통한 교육 책무성 확보로 나타나고 있다(민혜리, 2002). 대학이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교육의 기회는 보편화 되었으나,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학문공동체(learning institution)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trust)'는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이숙정, 한정신, 2004; Fukuyama, 1995). 특히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같은 학문의 테두리 안에서 교감을 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곳으로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곳이다.

한국 문화권에서 신뢰라는 말은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교사와 학생 관계처럼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상호 친밀성이 바탕이 되는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신뢰가 중요하다. 김의철(2002)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돌보아주고 환경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주며 사회적인 지원을 베푸는 관계, 즉 부모-자식 관계의 확대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와 격려 및 보살핌은 학생의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즉, 학교에서의 신뢰는 학생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켜 학업성취의 향상을 가져오는데 이는 인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교사-학생 관계의 확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Nick, Audra, & Lynn, 2000; Pianta &

Steinberg, 1992; Song, 1988)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의 신뢰 문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과 사회적으로는 능력 있는 인적자원 배출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신뢰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교사와 관련된 신뢰를 연구한 논문들(강진아, 2008; 김정화, 김연주, 2006; 박진옥, 2008; 설재연, 2006; 이숙정, 2006; 임영숙, 2008)과 교사신뢰 척도를 제작한 논문들(이숙정, 한정신, 2004; 최연주, 2007)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초중등 교사의 신뢰가 학습동기, 학교적응, 학업성취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한 것들이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6)은 초중고 대학생의 신뢰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여 교사에 대한 신뢰는 지도 조언, 존경함, 희생, 믿어줌이 중요하였으며, 이외에도 의지함과 스승 제자관계가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이상미, 김의철과 박영신(2006)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은 스승이니까 무조건 신뢰한다 외에, 아껴주고 관심 있음, 바른길로 이끌어주는 조언, 상담을 해줌이 교사를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를 불신하는 이유로는 존경할 수 없음, 편애/차별, 무관심과 이해부족, 무책임한 행동으로 모범이 안 됨 등을 지적하였다. 대학에서의 교수 신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최근 정은이와 박용한(2008)은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았으며, 대학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친밀감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대학교육의 과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민혜리, 2002). 대학이 추구하는 수월성(excellence)의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교수에 대한 신뢰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교사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장선자, 2004), 교사에 대한 신뢰가 고등학생 시기보다 대학생 시기에 감소하였다는(박영신, 김의철, 2006)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수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앞서 교수 신뢰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 신뢰의 개념과 관련 연구

신뢰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특성적 접근과 관계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성적 접근에서는 신뢰를 개인의 성향적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이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정의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Deutsch(1958, 1960), Garske(1976), Mellinger(1956), Rotter(1967, 1980) 등이 있다. Deutsch(1960)는 신뢰를 “개인이 어떤 행동 결과를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하는 행동으로서, 그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그 예상이 맞을 때 초래되는 긍정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예상이 맞지 않을 때 초래되는 더 큰 부정적 결과까지도 예상하고 선택한 행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Mellinger(1956)는 신뢰를 “상대방의 의도나 동기에 대한 확신과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존중”으로 정의하였으며, Rotter

(1967)는 신뢰를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말, 약속, 구두 또는 문서화된 진술이 믿을만한 것인지에 대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된 기대”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Rotter가 상정한 개인의 성향적 특성으로서의 신뢰는 1980년 대 이후 신뢰를 정적인 개념이 아닌 역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신뢰가 사회적 체제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더 이상 조직에서의 신뢰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이숙정, 2005).

이러한 관계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Lewis와 Weigert(1985), McAllister(1995), Hoy와 Tschannen-Moran(1999), Adams와 Christenson(2000) 등이 있다. 즉 이들은 신뢰 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을 사회나 조직으로부터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체제와 조직 속의 개인으로 보고 신뢰를 정의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뢰는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적, 성향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관계의 특성과 신뢰성 요인들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적인 접근에서 이숙정과 한정신(2004)은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가 개인의 신뢰하고자 하는 성격적 성향보다는 학생과 교사의 구체적인 관계의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관계적인 성향으로 교사 신뢰를 규정하였다. McAllister(1995)는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대방의 의도와 동기 그리고 행동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기초하여 관계 형성 유지,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인지적·정의적 방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Adams와 Christenson(2000)은 가정과 학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에 대해 연구하면서

신뢰를 “상대방이 그들의 관계 그 자체 혹은 관계의 목적이거나 명시적 목표에 혜택을 주거나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성취하도록 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정의하였다. Rousseau 등(1998)은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신뢰를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기초해서 취약성을 수용하려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신뢰를 관계로 파악하고 관계 형성 과정에 인지, 정서, 행동의 요인들이 모두 작용하는 것(이숙정, 2005)으로 본 것이다.

개인은 조직 속에서 구성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신뢰를 정의할 때 관계적 접근에서 시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과의 신뢰 문제는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궁극적으로 교수 신뢰가 학생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닌, 대학이라는 특수한 학문적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교사 신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초중등 교사들에 관한 신뢰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Furrer와 Skinner(2003), Weinstein(1993), 그리고 Babad(1990) 등은 교사의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이 학생 자신의 기대와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학생이 기대하는 교사상을 확립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 활동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Skinner와 Belmont(1993)은 교사와 학생간에 정서적이고 신뢰로운 관계가 학생들의 학습동기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학습동기나 자아개념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

였다. Pianta와 Seinberg(1992)는 학생의 교사신뢰 정도가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 교사신뢰와 관련된 우리나라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비행 및 또래 관계에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으며(이경아, 정현희, 1999), 교사의 지식적인 측면보다 정서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학생들은 교사를 더욱 신뢰하며, 중학생이 대학생보다 교사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장선자, 2004)는 결과가 있다. 또한 교사 신뢰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그리고 학급풍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숙정, 2006)이라는 연구도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와의 신뢰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교수의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교수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는 결과가 있다(장선자, 2004). 또한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사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았으며, 대학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친밀감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이, 박용한, 2008).

#### 신뢰 척도와 구성요인

Rotter(1967)는 최초로 대인간 신뢰를 측정하는 ‘대인간 신뢰 척도(Interspersonal Trust Scale -ITS)’를 개발하였다. Rotter의 대인간 신뢰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신뢰성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신뢰를 조직의 특성이나 관계의 특성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신뢰 관계도 개인과 개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등 그 의미가 더 넓고 다양해지면서(이숙정, 한정신, 2004) 새로운 신뢰 척도들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인 신뢰척도들로는 Cummings와 Bromiley(1996)의 조직신뢰 척도(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Johnson-George와 Swap(1982)의 신뢰척도(Specific Interpersonal Trust Scale), McAllister(1995)의 조직에서의 대인 신뢰 척도(Interpersonal Trust Measures In Organization), Hoy와 Tschannen-Moran(1999)의 학교에서의 신뢰척도(Trust Survey in School)들이다. 이 척도들은 개인의 일반적 신뢰성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사회 관계속에서의 특정 타인 혹은 특정 집단으로 구체화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신뢰의 구성요인들도 일차원적이지 않고 다차원적이다(이숙정, 한정신, 2004).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신뢰에 관한 척도는 이숙정과 한정신(2004)이 개발한 교사신뢰 척도와 이숙정(2005)의 교사가 지각한 신뢰 척도, 그리고 최연주(2007)의 초등학교 교사 신뢰도 척도 정도이다.

신뢰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Mayer, Davis와 Schoorman(1995)은 신뢰의 요인을 능력(ability), 성실성(integrity), 자비(benevolence)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Mishra(1996)은 신뢰의 요인을 개방성(openness), 배려(concern), 믿음(reliability), 능력(competence)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학교에서의 신뢰를 연구한 Hoy와 Tschannen-Moran(1999)은 자비(benevolence), 믿음(reliability), 역량(competence), 정직(honesty), 그리고 개방성(openness)을 신뢰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Bryk과 Schneider(2002)는 학교에서의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신뢰요인을 존경(respect), 역량(competence), 타인에 대한 존중(personal regard for others), 성실성(integrity)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전찬열(2000)은 신뢰요인을 개방성, 배려, 믿음, 능력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개방성, 배려, 믿음을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신뢰로, 능력은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호정(1999)은 신뢰의 유형을 조직신뢰, 상관신뢰, 동료 신뢰로 구분하고 신뢰 요인으로 진실성, 자비, 능력, 공정성, 정직성 등을 제시하였다. 지은림 등(2003)은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여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의 요인을 제시하였고, 이숙정과 한정신(2004)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 신뢰의 요인으로 개방성, 능력, 성실성, 돌봄, 믿음, 친밀감 등의 6개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개방성은 교사가 얼마나 편견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관점과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점을 검토 및 수정하고 재구성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능력은 구체적인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소유 여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성실성은 교사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도덕적 규칙이나 규범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지녔는가에 대한 것이고, 돌봄은 교사가 상대방의 관심과 관점을 존중하고 그 존중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행위하려 하는가의 특성이다. 믿음은 학생들이 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그의 말과 행동에 의지하려는 태도이며, 친밀감은 상대방과의 정서적 결속감이나 연대감을 가짐으로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가깝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교사신뢰의 요인은 모두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특성으로서 파악된다. 또한 이숙정(2005)은 교사가 지각한 신뢰 척도를 제작하였는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뢰, 교장에 대한 신뢰, 동료교

사에 대한 신뢰의 3가지 하위 차원과 믿음, 성실성, 개방성, 친밀감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명연과 이영석(2000)은 한국인들의 신뢰기반이 미국인들의 신뢰기반과는 달리 독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성열(2005)은 한국적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한 토착심리학적 고려를 바탕으로 신뢰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수 신뢰 척도를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의 학생과 교수 간 신뢰를 측정하는 신뢰척도를 개발하여 향후 교수신뢰에 관한 발전적인 연구의 기초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추출한 신뢰의 구성요인과 본 연구자가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신뢰의 구성요인들을 종합하여 하위 요인들을 설정한 후 신뢰 측정을 위한 문항을 제작한다. 이와 같이 제작된 예비검사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한 요인들을 추출한다.

둘째, 예비검사에서 추출한 신뢰의 구성요인들에 포함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고 도구의 타당화 과정을 거쳐 한국형 교수 신뢰 척도를 개발한다.

## 방법 및 결과

교수신뢰척도의 개발을 위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와 기존 이론들을 검토하여 신뢰의 구성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검

사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예비 검사 결과를 기초로 본 검사의 구성요인 및 최종 문항을 확정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예비 검사의 제작

### 개방형 설문 실시 및 요인 추출

**연구대상.** 교수신뢰 척도의 개발을 위해 먼저 개방형 설문을 2008년 6월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75명, 경기지역이 94명, 충남 지역이 101명이었고,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가 115명, 이공계열이 67명, 예술 계열이 8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28명, 여학생이 142명이었으며, 남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3.3세, 여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2.9세였다.

**분석 방법.** 교수 신뢰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진술문을 2명의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분석 및 유목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각 응답 내용별로 연구자들은 각각 동일한 내용의 특성들끼리 분류하였고, 그 후 연구자들 간에 동일 내용의 분류 범주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분류 범주를 중심으로 진술한 내용들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하고자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빈도수가 전체 4% 이상 차지하는 것들을 구체적 진술 내용과 함께 제시하였다.

**개방형 설문 분석 결과.** 조사에 사용된 설문의 내용은 “어떤 교수를 신뢰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였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신뢰로운 교수 특성

표 1. 교수 신뢰의 주요 범주 및 빈도

순위	범주명	구체적 진술내용	n	%
1	친밀감	학생과 대화를 많이 함,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줌, 학생의 말을 잘 들어줌,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생활함, 자상함, 긍정적인, 학교 행사에 학생과 함께 참여, 학생을 잘 챙김, 학생과 격의 없이 잘 어울림,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음	233	13.3
2	강의능력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함, 강의에 충실함, 공정한 성적 평가, 재미있게 수업을 함, 학생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함, 이해하기 쉽게 가르침, 수업 준비 철저, 경험과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애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수업을 함, 개인차를 인정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업, 동기유발 해줌	228	13.0
3	존중	학생을 배려하고 존중,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먼저 생각, 학생을 사랑하고 아껴줌, 학생을 믿어줌, 학생을 잘 이해함, 학생을 진심으로 대함	207	11.8
4	개방성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 편안하게 상담을 잘 해줌,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인맥이 넓음, 친구 같음, 인간적임, 포용력이 있음, 친절함, 학생의 장점을 파악함, 유머가 있음	201	11.4
5	전문성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평판이 좋음, 카리스마 있음, 다방면의 지식이 많음, 끊임없이 연구함, 해당분야의 지식, 실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임, 현장경험이 많음, 대외적으로 활동함	180	10.2
6	돌봄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함, 비밀을 지켜줌, 도움이 되는 말을 잘 해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줌, 자기 일처럼 학생의 일에 직접 나섬, 힘들 때 의지가 됨, 학생을 걱정하고 신경써줌	159	9.1
7	지도력	학생에게 역할 모델이 됨, 미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함, 학생의 단점을 냉정하게 지적 충고, 진로에 대해 확신을 주고 취업지도를 잘함,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제공, 학생을 잘 통솔하고 이끌어 줌, 담당한 학생을 철저하게 관리, 지도력 있음	144	8.2
8	성실성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함, 시간 관리에 철저함, 공과 사를 구별함, 행동이 바르고 품위가 있음,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함, 성실함, 책임감 있음, 적극적인, 진실함, 노력함, 약속을 잘 지키	123	7.0
9	열정	강의와 연구 및 자신의 삶에 열정적임, 자신과 학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도전의식이 있음	111	6.3
10	신념	자신만의 신념이 있음, 교육자로서 철학이 있음	76	4.3
	기타	일처리를 잘 함, 일관성 있음, 융통성 있음, 봉사를 잘함, 객관적임, 언행일치, 삶을 즐김, 겸손함, 학생에게 인기가 많음 등	89	5.0
소계			1751	100

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였다. 개방형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신뢰  
할 수 있는 교수의 특성으로 친밀감(13.3%)과  
강의능력(13.0%)을 우선으로 언급하고 있었  
다. 그 외에 존중(11.8%), 개방성(11.4%), 전문  
성(10.2%), 돌봄(9.1%), 지도력(8.2%), 성실성  
(7.0%), 열정(6.3%), 신념(4.3%)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교수 특성으로 나타났다. 교수 신뢰 요  
인으로 추출된 10개 특성 중 교수의 능력과  
관련된 것은 강의능력, 전문성, 지도력이었고  
교수의 인성과 관련된 것은 친밀감, 존중, 개

방성, 돌봄, 성실성, 열정, 신념 등이었다. 대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수는 학문적으로  
전문가이면서 강의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  
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열  
린 마인드로 학생들을 돌보아주며 성실성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 교육자여야 학생들에게  
깊은 신뢰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설문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추출한  
신뢰 요인과 기존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

표 2. 본 연구에서 추출된 신뢰요인과 선행연구의 신뢰요인 비교

본 연구의 설문 결과 추출한 교수신뢰요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신뢰요인					
	조직에서의 신뢰 요인 (Mayer, Davis & Schoorman, 1995)	조직에서의 신뢰요인 (Mishra, (Hoy & Tschannen -Moran, 1999)	학교에서의 신뢰요인 (Hoy & Tschannen -Moran, 1999)	학교에서의 신뢰 요인 (Bryk & Schneider, 2002)	교사-학생 관계 척도 요인(지은림 외, 2003)	교사 신뢰요인 (이숙정, 한정신, 2004)
개방성		개방성	개방성			개방성
		믿음	믿음		신뢰감	믿음
전문성	능력	능력			유능감	능력
	자비		자비			
성실성	성실성			성실성		성실성
강의능력			역량	역량		
		배려				
			정직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존중감	
				존경		
친밀감					친밀감	친밀감
돌봄						돌봄
열정						
신념						
지도력						



는 요인들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개방형 설문 결과 추출한 교수 신뢰 요인에는 기존의 국내외 신뢰 척도에서 요인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열정, 신념, 지도력이 포함되어 있고 능력 또는 역량과 유사한 개념인 전문성과 강의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 제작 및 예비 검사 실시**

**연구 대상.**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21명을 제외한 총 329명을 실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109명, 경기도 지역이 121명, 충남 지역이 99명이었고, 전공별로

는 인문사회가 138명, 이공계열이 102명, 예술계열이 89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59명, 여학생이 170명이었으며, 남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3.9세, 여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2.5세였다.

**분석방법.**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교 회전(oblimin)을 통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과 요인수를 확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WIN 15.0이다.

**예비검사 제작 및 실시.** 먼저 개방형 설문결과 추출된 신뢰 요인 및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비교 종합한 후 요인을 추출하고 이에 의거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표 3. 교수신뢰의 구성 요인 및 개념

구성요인	구성요인의 개념적 정의	포함하는 개념	조작적 정의
친밀감	상대방과 정서적 연대감과 믿음을 공유하는 태도.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돌봐주려는 태도	돌봄, 존중, 이해,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 같은 분들이다.</li> <li>· 학생들을 걱정하고 신경써준다.</li> <li>· 학생들을 배려해 준다.</li> </ul>
전문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능력.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	성실성, 자부심, 전문적 능력, 노력, 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다.</li> <li>·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li> <li>·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li> <li>·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li> </ul>
강의 능력	강의에 충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며, 공정한 성적 평가를 하는 능력	공정성, 강의기술,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한다.</li> <li>· 강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li> <li>· 성적평가를 공정하게 한다.</li> <li>· 강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다.</li> </ul>
지도력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학문적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도하는 능력	진로지도능력, 책임감, 리더십, 모범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점을 지적하고 충고를 해준다.</li> <li>· 미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li> <li>· 진로에 대해 확신을 준다.</li> <li>·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해준다.</li> </ul>

표 4. 교수신뢰 요인 추출 근거

구성요인	기존 이론
친밀감	이숙정, 한정신(2004), 지은립 외(2003), Pianra(1991)
전문성	이숙정, 한정신(2004), Mishra(1996), Mayer, Davis & Schoorman(1995), Hoy & Tschannen-Moran(1999)
강의능력	Mayer, Davis & Schoorman(1995), Hoy & Tschannen-Moran(1999), Mishra(1996)
지도력	Hoy & Tschannen-Moran(1999), Bryk & Schneider(2002)

이렇게 작성된 문항들은 본 연구자와 교육심리를 전공한 박사 2인이 함께 각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였고 수정된 문항을 30명의 대학생에게 응답하게 한 후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문항의 표현 및 의미전달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형 5점 척도의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검사를 요인 분석하여 고유치와 스크리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요인수를 결정한 후, 요인 부하량 .30 이상인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한국의 대학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신뢰 요인을 찾기 위한 본 연구의 개방형 설문 반응 결과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신뢰의 구성 요인들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한 교수신뢰의 구성요인과 개념은 표 3과 같고, 이 요인들을 추출한 이론적 근거는 표 4와 같다.

**예비검사 문항의 요인 분석 결과.** 신뢰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개방형 설문지의 결과를 토대로 총 45개의 문항을 제작하고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반응 분포도를 분석하여 응답이 한 곳에 몰려있거나 편차가 거

의 없는 문항들은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총점과 문항간 상관이 .20이하인 문항들은 변별도가 낮으므로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은 문항으로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에 의해서 요인을 추출하고, 신뢰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현실적으로 상관이 0일 수 없기 때문에 요인간 상관을 어느 정도 허락하는 사교 회전(Oblimin rotation)을 통해서 요인을 회전시켰다.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와 스크리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요인수를 결정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통분 .40이하인 문항들도 삭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같은 요인으로 묶여지나 해석하기 어려운 문항들은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한 결과 총 27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본 검사의 요인구조 확인**

**연구대상.**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19명을 제외한 총 461명을 실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162명, 경기지역

이 150명, 충남 지역이 149명이었고,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가 157명, 이공계열이 164명, 예술계열이 14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41명, 여학생이 220명이었으며, 남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3.8세, 여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3.1세였다.

**분석 방법.** 교수 신뢰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교 회전(oblimin)을 통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수를 확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확정된 신뢰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고 문항과 총점 간 상관관계와 하위 문항들 간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WIN 15.0과 AMOS 5.0이었다.

**본 검사 문항의 요인 구조 확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신뢰 척도의 타당화를 검증하기 위해 본 검사 문항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 461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에서 선정된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주축요인법과 사교회전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과 고유치를 고려하여 요인을 선택한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27개 문항에 대한 사교회전 후의 각 요인별 계수 행렬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의 4개 요인이 최종적으로 교수 신뢰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

었으며, 이 4개 요인은 약 7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교수신뢰 척도의 요인별 문항수와 문항 내용은 표 6과 같다. 교수신뢰 본 검사는 친밀감 8 문항, 전문성 8 문항, 강의능력 5문항, 지도력 6문항 등 전체 2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 5점 척도이다.

교수신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96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를 살펴보면 친밀감이 .85, 전문성이 .83, 강의능력이 .84, 지도력이 .80으로 나타나 매우 신뢰로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수신뢰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수신뢰의 구성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적 상관으로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친밀감과 지도력 요인 간 상관관계가 .57인 것을 제외하면 교수 신뢰의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50 이하로 요인들 상호간에 적절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검사의 공인 타당도.** 기존의 교사신뢰 척도(이숙정 · 한정신, 2004)와 본 연구에서 제작한 교수신뢰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교사신뢰 척도는 각 문항을 대학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두 척도의 상관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수신뢰 척도와 교사신뢰 척도는 .87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 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친밀감 요인은 교사신뢰척도의 개방성, 성실성, 돌봄, 친밀감과의 상관이 모두 .70 이상으로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교수신뢰 하위 요인인 친밀감은 돌봄, 존중, 이해, 배려

표 5. 교수신뢰척도의 요인계수 행렬

문항번호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	공통분
37	.863	.025	-.011	-.045	.708
41	.835	-.015	.102	.036	.823
40	.831	.039	.001	-.026	.695
36	.775	-.005	-.077	.091	.640
42	.767	.018	1.79E-005	.153	.786
39	.705	-.029	.076	.019	.550
38	.686	.102	.063	.066	.680
18	.537	.145	.168	.074	.614
23	-.010	.853	-.202	.131	.668
25	-.054	.833	.015	.131	.805
24	.063	.803	.087	-.023	.774
26	-.104	.761	.132	.095	.735
21	-.033	.719	.133	-.121	.526
22	.200	.707	.004	.026	.714
20	.244	.621	.086	-.042	.642
19	.107	.581	.193	.072	.686
10	-.041	.063	.727	.038	.591
9	.191	-.052	.637	.096	.604
7	-.015	.118	.622	.033	.508
8	.144	.201	.524	.065	.635
11	.230	.020	.483	.183	.596
32	.163	-.005	-.018	.699	.647
31	.136	.042	-.040	.689	.625
28	-.130	.047	.180	.573	.404
29	.142	.174	.038	.535	.608
33	.287	.112	.139	.455	.712
13	.258	.141	.131	.440	.676
고유치	14.239	2.570	1.233	1.049	
설명변량	52.738	9.529	4.568	3.886	
누적변량	52.738	62.258	66.826	70.712	

표 6. 교수신뢰의 구성요인별 문항 수와 문항내용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내용
친 밀 감	8	37.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인간적이어서 다가가기가 편하다
		41.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신경 써 준다.
		40.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의지가 된다.
		36.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친구 같은 분들이다.
		42.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
		39.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불러준다.
		38.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대할 때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 준다.
		18.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준다.
전 문 성	8	23.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다.
		25.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전공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이다.
		24.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전문가로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26.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21.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자신의 학문적 업적 및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22.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평판이 좋다.
		20.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연구와 관련된 논문이나 저서가 많다.
		19.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다방면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강 의 능 력	5	10.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휴강하지 않고 강의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
		9.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성적 평가를 공정하게 한다.
		7.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강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8.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강의에 충실하다.
		11.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강의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한 약속은 꼭 지킨다.
지 도 력	6	32.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진로에 대해 확신을 주고 취업지도를 잘 한다.
		31.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냉철한 충고를 해 준다.
		28.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지 않을 때 엄격하게 지도한다.
		29.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33.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잘 통솔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준다.
		13.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해 준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대방과 정서적 연  
대감을 갖고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  
을 돌봐주려는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  
한 요인들과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과 강의능력 요인은 교사신뢰  
척도의 능력, 성실성과 .70 이상의 높은 상관

표 7. 교수신뢰 척도의 구성요인별 상호상관행렬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
친밀감	1.000			
전문성	.394***	1.000		
강의능력	.379***	.500***	1.000	
지도력	.570***	.490***	.429***	1.000

\*\*\*  $p < .001$

표 8. 교수신뢰 척도와 기존 척도와의 상관

		교사 신뢰 척도						
		개방성	능력	성실성	돌봄	믿음	친밀감	척도 합
교수 신뢰 척도	친밀감	.791***	.629***	.702***	.758***	.411***	.754***	.780***
	전문성	.621***	.737***	.758***	.665***	.451***	.476***	.767***
	강의능력	.646***	.711***	.733***	.701***	.395***	.490***	.758***
	지도력	.701***	.638***	.695***	.739***	.358***	.627***	.743***
	척도 합	.800***	.774***	.827***	.824***	.468***	.690***	.876***

\*\*\*  $p < .001$

을 보였다. 전문성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 개념이고, 강의능력 또한 강의 기술, 성적 평가 능력과 성실성, 신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력 요인은 개방성, 돌봄과 .7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초중등 학교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교수가 학문적 리더일 뿐만 아니라 취업 지도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개방적인 태도 및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사신뢰 척도에서 개방성은 상대방의 관점과 의견을 고려하는 태도이며, 돌봄 역시 상대방의 관심과 관점을 존중하고 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행

위 하려는 태도로 이러한 태도를 지닌 교수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수 신뢰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검사를 실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얻은 모형이 일반화할 수 있는 모형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7개의 측정변수가 4개의 이론 변수를 잘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측정변수를 해당되는 요인에만 부합되도록 하였다. 잔차들 간에는 모두 상관이 없고 4개 요인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계산방법은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교수 신뢰 척도의 검증 모형에 대한 부합도 지수

모형	RMSEA	TLI	NFI	CFI	X2
검증모형	.072	.918	.888	.926	866.699(df=318, p<.001)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RMSEA가 .072로 나타나 적절한 부합도를 나타내었다. CFI는 .926, TLI는 .918, NFI는 .888로 나타나, 전체적인 부합도 지수들을 볼 때 이 검증모형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신뢰 척도의 5요인 구조 모형은 일반화할 수 있는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논 의

대학에서의 교수와 학생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학문공동체(learning institution) 안에서 성장 발전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교수와 전공 영역의 멘토로서 향후 자신의 직업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인간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수에 대한 학생의 신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대학에서의 신뢰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교육적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태도나 행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설재연, 2006)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교수신뢰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의 신뢰 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에 적합한 교수 신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분석과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뢰 척도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교수 신뢰의 구성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은 친밀감, 강의능력, 존중, 개방성, 전문성, 돌봄, 지도력, 성실성, 열정, 신념 등이었다. 이를 기초로 문항을 제작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쳐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7개 문항의 교수 신뢰 척도를 개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신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가 .96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신뢰도가 .81 ~ .86으로 매우 신뢰로운 척도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대학조직에 적합한 교수신뢰 척도의 개발이라는 의의가 있다. 국내의 학교에서의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초등이나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뢰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 척도들은 초중등을 배경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대학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며 학문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조직의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관계를 잘 반영한 본 교수신뢰 척도는 향후 대학에서의 신뢰 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작한 교수신뢰 척도는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한 척도라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심리적 특성은 '우리

관계'를 중요시 하며, 정서적 유대와 인정의 교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박영신, 김의철, 2005)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대학에서의 교수-학생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수 특성에 대한 개방형 설문 결과 추출한 요인들은 바로 이런 한국적 대학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5)은 한국인의 신뢰의식 내면에 자리 잡은 토착심리를 탐구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성실과 정직과 같은 도덕성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개방형 설문 결과는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방형 설문 결과 능력관련 요인(강의능력, 전문성, 지도력)이 전체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성관련 요인(친밀감, 존중, 개방성, 돌봄, 성실성, 열정, 신념)이 전체의 63.2%를 차지해 교수의 인성 및 성격과 관련된 요인이 신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작한 교수신뢰 척도의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성 등 세 요인은 교수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지만 전문성의 경우 성실성과 노력, 열정 등이, 강의능력은 공정성과 신념이 그리고 지도력은 책임감이 포함된 개념으로 능력과 더불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사 신뢰 요인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수 신뢰 요인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기존의 교사신뢰와는 다른 새로운 신뢰의 구성요인들이 추출되었는데, 특히, 능력 측면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뢰 연구에서는 능력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성으로 확대되고 세분

화되었다. 이는 대학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대학의 교육활동 강화와 대학 교수의 교수(teaching) 능력의 향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민혜리, 2002), 교육은 교수가 갖는 가장 전통적인 책무일 뿐만 아니라 교수에게 기대되는 기본적인 과업이라는(Altbah, 1991) 주장들과 초점을 같이하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 즉, 교수에게 있어서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의 전문적이고 뛰어난 실력 외에 강의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학생의 진로를 책임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는 대인관계 신뢰와 불신의 기반에 대한 이해(최상진 외, 2005)가 중요하며, 대인간 신뢰는 오랜 기간을 통한 대인접촉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생성되며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그 지속기간과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한성열, 2005). 대학에서의 교수-학생 관계도 마찬가지로 일단 개학 중 지속된 신뢰의 관계는 이후 직업인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인생의 중요한 멘토로 그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그만큼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수의 자각과 신뢰가 부재된 현 대학사회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신뢰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나, 제시한 타당도와 신뢰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alpha$  만으로는 신뢰도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을 확인하여 척도의 양호도를 검증하는 것이 후



속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일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집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더 많은 표집과 광범위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척도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향후 교수신뢰 척도를 활용함과 동시에 학업성취, 동기 등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 내에서 신뢰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학에서도 대학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후배간의 신뢰, 동료간의 신뢰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차원의 신뢰에 대한 정의와 특성,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강진아 (2008). 학생의 교사신뢰, 자아해석성향, 과제 수행능력이 수행무관 보상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 기업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99-120.

김의철 (2002). 한국의 민주주의, 리더십과 정치문화: 정치효능감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37-170.

김정화, 김연주 (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15(2), 117-129.

김호정 (1999).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행정학보, 33, 19-35.

민혜리 (2002). 대학의 교수·학습의 질에 대한 재인식. 비교교육연구, 12(1), 75-92.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박진옥 (2008). 아동이 지각한 교사지지 및 교사신뢰와 학습동기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재연 (2006). 학생의 교사신뢰, 학습동기 및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13-226.

이상미, 김의철, 박영신 (2006). 청소년의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와 불신: 토착심리학적 접근. 아동교육, 15(4), 297-312.

이숙정 (2005). 교사가 지각한 신뢰 척도의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8(3), 117-134.

이숙정 (2006). 중·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이숙정, 한정신 (2004). 교사신뢰척도의 개발

-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8(3), 23-39.
- 임영숙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유형, 교사신뢰,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찬열 (2000). 신뢰와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3(2), 209-223.
- 장선자 (2004). 중학생과 대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이, 박용한 (2008).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9(1), 73-93.
-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교사-학생 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6(2), 25-41.
-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김양하 (2005). 한국문화에서의 대인관계 신뢰와 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20.
-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한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속의 신뢰와 불신의 기반으로서의 마음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17.
- 최연주 (2007). 초등학교 교사 신뢰도 척도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성열 (2005). 한국 사회의 신뢰와 불신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및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63-174.
- Adams, K. S. & Christenson, S. L. (2000). Trust and the family-school relationship examination of parent-teacher difference in elementary and secondary grad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5), 477-497.
- Altbah, P. (1991).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An Encyclopedia*, New York: Garland.
- Babad, E. (1990). Measuring and changing teachers' differential behavior and perceived by students and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683-690.
- Bryk, A. & Schneider, B. (2002). *Trust in schools*. Russell Sage Foundation.
- Cummings, L. L. & Bromiley, P. (1996).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OTI):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R. M. Kramer, & T. R. Tyler(eds.),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n theory and research*, 303-33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utsch, M. (1960). The effect of motivational orientation upon trust and suspicion. *Human Relations*, 13, 123-139.
- Deutsch, M. (1958). Trust and suspic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 265-279.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구승희 역(2002).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 Garske, J. P. (1976). Personality and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personal trust, *Psychological Reports*, 39, 649-650.
- Hoy, W. K., & Tschannen-Moran. (1999). Five faces of trust: an empirical confirmation in urba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School Leadership*, 9, 184-208.
- Johnson-George, C. & Swap, W. C., (1982).

- Measurement of specific interpersonal trus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assess trust in a specific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306-1317.
- Lewis, J., & Weigert, A.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4), 967-985.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 McAllister, D. (1995). Affect-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1), 24-59.
- Mellinger, G. D. (1956). Interpersonal trust as a factor in commun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2, 101-1-5.
- Mishra, A. K. (1996). Organizational response to crisis:the centrality of trust, In R. M. Kramer & T. R. Tyler(Eds.), *Trust in organization: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261-287, thousand O만, CA: Sage Publications.
- Nick, K., Audra, S., Lynn, W. (2000). *Improving Secondary Students Academic Succ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Motivational Strategies*. ED 444 087.
- Pianta, R. c. (199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
- Pianta, R. C. & Steinberg, M. (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61-80.
- Rotter, J. B. (1967). A new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trust. *Journal of Personality*, 35(4), 651-665.
- Rotter, J. B. (1980). Interpersonal trust, trustworthiness, gullibility, *American Psychologist*, 35(1), 1-7.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393-404.
- Skinner, E. A., & Belmont, M. J. (1993). Motivation in the Classroom: reciprocal effects of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engagement across the school yea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71-581.
- Song, I. S. (1988). The structure of academic self-concept: achievement, ability and classroom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6(1), 117-123.
- Weinstein, R. (1993). Children's knowledge of differential treatment in school: Implications for motivation. In T. Tomlinson (Ed.),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Overcoming barriers to high achievement* (pp.197-224). Berkely, CA: McCutchan.
- 1차원고접수 : 2009. 6. 21.  
수정원고접수 : 2009. 8. 09.  
최종게재결정 : 2009. 8. 19.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fessor Trust Scale (PTS)

**Jeong Eun I**

Chungwoon University

**Park Yonghan**

University of Ore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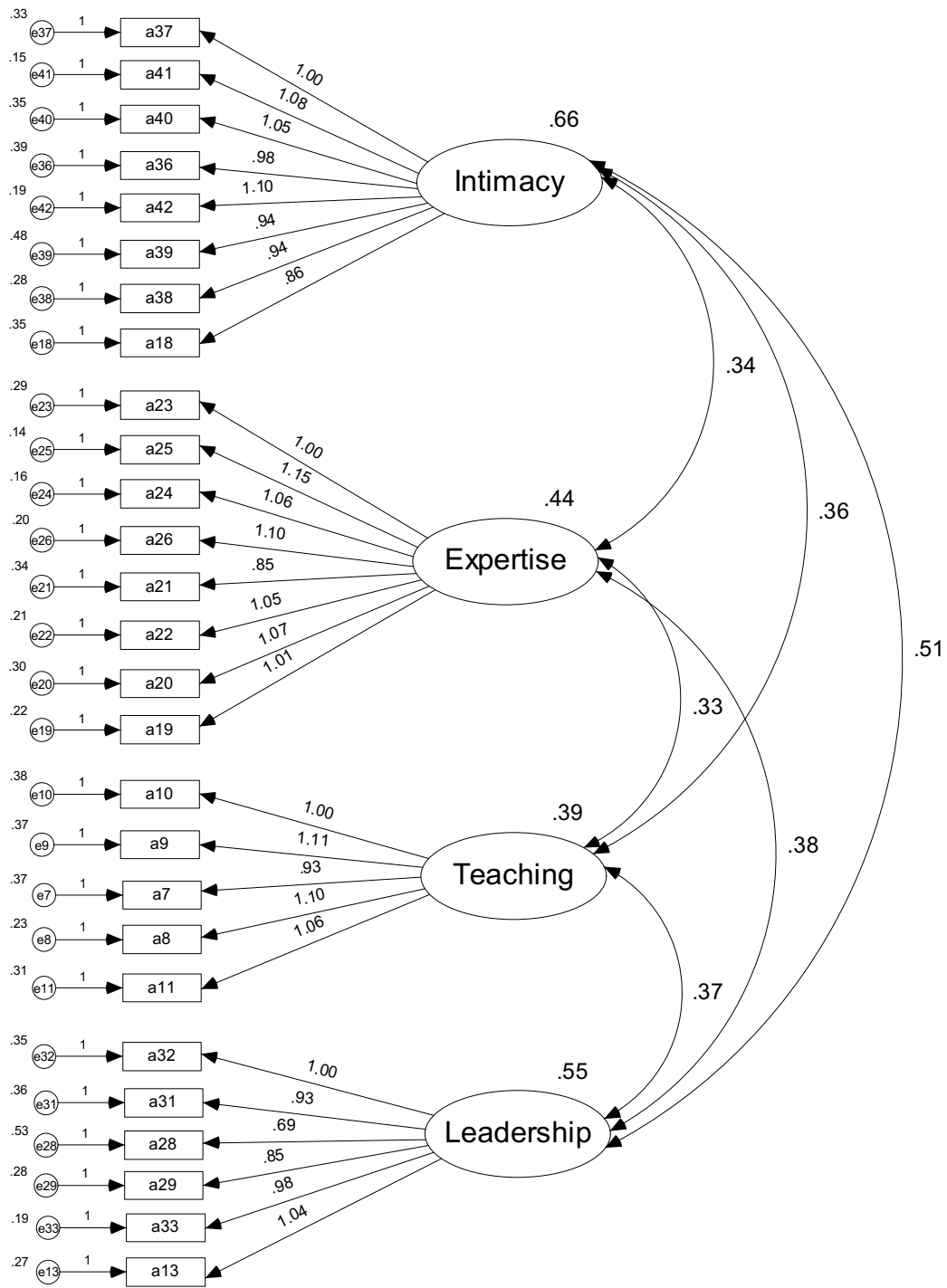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Professor Trust Scale (PTS) as a preliminary step for research on trust in college. First, we reviewed prior research on trust and examined various trust scales developed in Korea and also in other countries. Then, preliminary factors of professor trust were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an open-ended survey administered to college students. Drawing on these preliminary factors, we developed the items to measure college students' professor trust and tested the instrument. 270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open-ended survey and 790 students participated in preliminary or actual tests. For the final scale, we tested it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also examined its construct validity by conduct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tracted four factors including intimacy, expertise, teaching, and leadership, which consisted of 27 items for the final set of the Professor Trust Scale. The Cronbach's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of the overall scale was .96 indicating high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lso supported the validity of this factor structure by showing acceptable fit indices.

*Key words* : professor trust, scale development, validity

〈부록 표 1〉 교수신뢰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각 문항제거 후 Cronbach'  $\alpha$ 

문항번호	M	SD	Corr.	문항제거 후 $\alpha$ 계수
7	3.751	.846	.563	.964
8	3.823	.839	.722	.963
9	3.664	.927	.664	.964
10	3.952	.878	.574	.964
11	3.787	.869	.715	.963
13	3.622	.927	.794	.963
18	3.670	.916	.751	.963
19	3.985	.821	.761	.963
20	3.871	.902	.736	.963
21	4.077	.816	.552	.965
22	3.865	.836	.772	.963
23	3.952	.854	.637	.964
24	4.047	.811	.743	.963
25	4.012	.855	.745	.963
26	4.068	.858	.697	.964
28	3.592	.888	.526	.965
29	3.697	.824	.726	.963
31	3.556	.917	.675	.964
32	3.455	.950	.682	.964
33	3.661	.850	.808	.963
36	3.329	1.013	.654	.964
37	3.416	.994	.692	.964
38	3.673	.932	.761	.963
39	3.610	1.027	.643	.964
40	3.386	1.038	.701	.964
41	3.571	.955	.792	.963
42	3.547	.993	.784	.963

전체 문항의 Cronbach'  $\alpha$ =.965



〈부록 그림 1〉 교수 신뢰에 대한 측정 모델의 검증 결과